

김민석 “민주당, 민생중심 다수정당”…당정 ‘전면 협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민주당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중심 다수정당’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와는 전면적으로 협력하되 민심을 전달하고 필요할 때 직언하는 ‘창조적 수평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대표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당 운영 방향과 집권여당의 역할을 제시했다.

수락연설의 방점은 개인의 승리보다 민주당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 당내 통합에 켜졌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언어와 정책, 태도, 문화에 이르기까지 당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5·18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20살 서울대 총학생회장에서 40년 만에 민주당 대표가 됐다”며 “제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의 대표가 돼 명예롭고, 1인1표 당원주권 시대의 첫 선택을 받아 역사적이며, 평생의 스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자신의 정치 여정과 가족, 동료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평생 동지인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대한민국의 ‘K-황금시대’를 열어야 할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에 나선 아들을 격려하며 거리에서 전경에게 장비를 건넸던 어머니와 아버지와 동갑인 권노갑 상임고문, 18년에 걸친 원의 생활을 곁에서 지켜준 동료들을 차례로 거론했다. 그는 “긴 세월이 힘들었지만 견뎌낸 제 자신을 생각해도 울컥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40년에 걸친 정치 인생의 결론으로는 국민에 대한 두려움과 감사를 꼽았다. 김 대표는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이 제 정치의 한 줄 결론”이라며 “오랜 시간 보내준 격려와 응원뿐 아니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한민수, 이상윤, 김민석 당 대표, 서미화, 박선원, 최희만 의원. AFP

수락연설서 ‘ABC 플랜’ 제시…“언어·정책·태도·문화 진화”

李 정부 성공 위해 토론·직언…“방패이자 민심창구 되겠다”

정청래·송영길과 동행 약속…당내 화합·외연 확장에도 방점

라 비판과 질책까지 모두 한없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시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불가피하게 공약이나 정책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당원과 국민에게 그 이유와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혁신 구상으로 ‘민주당 ABC 플랜’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ABCD 성장전략’을 설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권여당의 정책과 조직 운영도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 크고 넓게 세력을 더하는 뭉치정치와 확장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민주당을 유능한 민생중심 다수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김 대표는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의 새로운 뉴스가 나가고, 민주당은 새벽부터 뛰게 될 것”이라며 “역사정당과 민주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을 책임자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일상적인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성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실천형 당당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로 규정했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거나 당이 별도의 목소리만 내는 관계가 아니라 국정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면서도 당이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을 보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고,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며 “그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며 정부의 방패가 되는 동시에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민심창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쟁했던 정청래·송영길 후보와의 동행도 약속했다. 김 대표는 두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앞으로 함께 뛰겠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시겠다”고 말했다.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형성된 당내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고 각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과 정치세력을 당 운영에 폭넓게 참여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김민석은 누구

‘DJ키즈’…굴곡 딛고 집권당 수장

86 학생운동 대표주자…18년만에 국회 재입성 4선 중진
이 대통령과 총선·대선·국정 호흡…총리 거쳐 당대표로

17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62) 대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춘 여권의 대표적 ‘전략통’으로 꼽힌다. 30대 초반 ‘DJ 키즈’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긴 정치적 부침을 겪었지만, 18년 만의 국회 복귀와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거쳐 집권여당 수장에 올랐다.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대표는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총학생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86세대’ 정치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해 1996년 15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출마, 만 32세로 당선됐다. 16대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김 전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을 맡으며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한 데 이어 같은 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치적 시련을 맞았다. 복당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총선에서 낙선하며 국민의 생활을 보냈다.

원외 기간에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중국 청화대에서 법학 석사, 러트거즈대 뉴욕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정책 역량을 다졌다.

2016년 민주당에 다시 합류한 뒤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

직을 맡으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영등포구에 당선돼 18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승리해 4선 고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호흡도 이 과정에서 깊어졌다. 22대 총선에서 당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략을 총괄하고, 같은 해 전당대회에서는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고, 대선과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돼 약 1년간 국정 전반을 경험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복귀한 그는 정부와 여당의 안정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당권에 도전해 승리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2002년 대선 당시 탈당을 다시 사과하는 등 과거의 정치적 과오와도 정면으로 마주했다.

‘DJ 키즈’에서 김 원의 생활을 거쳐 4선 중진과 국무총리, 집권여당 대표까지 오른 김 대표 앞에는 정부의 성공적 리더십, 러트거즈대 뉴욕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정책 역량을 다졌다.

2016년 민주당에 다시 합류한 뒤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3대 메가 당력 집중…지방성장·청년 공략

‘메가 지방성장 특위’ 설치…메가 플랜·추가 투자 추진

광화문 제2당사·청년최고위원 지명…‘주거 뉴딜’ 속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성장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청년층 지지를 회복과 주택 공급 확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 수습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열린 8·17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대표는 당내에 ‘메가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수도권에 멈춰 있던 반도체를 호남으로 옮겨 충청·영남으로 이어가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강국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9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새만금에서는 공공금융기관 이전과 해외 인공지능(AI)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추가 투자를 끌어낼 방침이다. 전북을 2·3차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메가 플랜도 마련한다.

서울 강북권과 경기 북부, 인천·강원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해 수도권 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추진한다.

청년세대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본격화한다. 광화문에 ‘서울 제2광화문사’를 설치해 청년 주도의 토론·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2명 가운데 1명을 청년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한 자리도 청년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도 추진

한다.

국회에는 상임위원회인 ‘청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당에는 청년·대학생을 지원하는 ‘1030 정책단’을 설치한다. 청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취업과 주거, 교육 등 세대별 현안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정 ‘부동산 공공 드라이브 제도개혁 TF’를 구성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한다. 공급 확대와 청년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주거 뉴딜’도 추진하고, 정부의 세계 개편안은 당정 협의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 문제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서울시장과 강릉 보궐선거 결과에는 대 표적의 재신임을 걸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고, 권성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강릉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 결과로 당 지도부의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중앙당에 서울정책단을 설치하고, 서울시장과 ‘정책 배틀’을 열어 후보 간 정책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물 중심의 선거에서 벗어나 민주당의 서울 발전 전략과 민생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당내 갈등은 계파와 진영을 넘어 인사를 고르게 기울이는 ‘메가 탕탕’으로 수습한다는 구상이다. 외부 인사 영입과 정치 세력 간 연대로 당의 외연을 넓히고, 이종당직 등 당내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조국 혁신당과도 통합·연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나주·무안 출신 박선원·서미화, 민주당 지도부 입성

최고위원 경선 승리 박지원·주승용·양향자 이후 처음
반도체랩 성공·호남정치 복원 바라는 지역 열망 안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신인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과 서미화 의원(비례)이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새 최고위원에 당선돼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호남 출신이 최고위원 경선을 통해 당선된 것은 지난 2012년 박지원 의원, 지난 2015년 주승용 의원, 지난 2020년 양향자 의원 이후 처음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한병도·서삼석·송갑석 의원, 22대에는 민형배 의원이 줄이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비록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두 의원은 각각 나주와 무안에서 태어났고 지역적 연고가 강한 정치인들이어서 당 지도부에서 호남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광주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성공시키고, 호남 정치 부활을 간절히 희망하는 지역의 열망은 경선과정에서 고스란히 노출됐다.

호남 순회경선에서 박 의원은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 1위를, 서 의원은 이어 2위를 하면서 누적득표에서도 박 의원이 2위에서 1위로, 서 의원은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씩 올라섰다.

다음날 열린 경기·서울 경선에서 다

소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호남의 지지가 당선 안경권에 들어서는 지렛대가 된 것이다.

두 의원은 당선은 당·정·청 공조 속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 두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공약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고,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여러차례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1차장,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정보위 간사, 민주당 전략기획위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국정 운영 경험을 강조하며 “성과를 만들어내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호남의 발전을 견인하는 문제를 지역 민원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정부·당 지도부를 연결해 구체화하고 정책화하는데 무게를 싣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복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데 따른 지역적 상실감을 언급하면서 전복이 2차·3차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출신인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12·3 계엄 제보를 해 눈길을 모았다. 연세대학교 삼민투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 1985년 미국문화



박선원 최고위원

원 정치능성 사건을 주도한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등을 수행해온 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최고위원에 당선돼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목포시의회에 당선돼 지방정치 경험을 한 서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 출입이 봉쇄되자 시각장애인임에도 직접 답을 넣어 의사당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어떤 국민도 어떤 당원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민주당’을 외치며 최고위



서미화 최고위원

원에 출마한 서 의원은 합동연설의 때마다 발군의 연설 실력을 보여며 당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

서 의원은 호남 발전과 관련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언급하며 “호남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오래 희생해왔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담은 포괄적 개헌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분열과 갈등, 정쟁을 멈추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지도부에서 크게 대변하고, 이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당원주권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